

이달의 초점

청년의 복합 위기와 기본사회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격차와 청년정책 접근성

| 박윤경 |

청년 건강 현황과 과제: 취약청년 중심으로

| 김동진·이지영 |

청년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제도의 정책과제

| 나원희 |

최근 청년층 고용 상황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2022~2026)

| 함선유 |

청년의 고립·은둔 현황과 과제

| 노혜진 |

청년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청년복지 제도화 과제

| 김성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청년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청년복지 제도화 과제

Institutionalizing Welfare Policy for Young People Facing Multiple Risks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현세대 청년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며 일반 청년정책과 사회보장정책 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청년 복지 제도화 과제를 제안한다. 은둔, 고립, 활동제약, 한부모가구, 장애, 이주배경,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 신용불량 등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기를 저해하는 현세대 청년의 위기는 다차원적이고 중첩되어 있다. 특히 2개 이상 중첩된 위기는 건강과 일, 소득, 연애와 결혼, 미래 전망에 이르는 삶 전반에서 청년의 취약성을 강화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개방형 보편적 사업과 위기 청년에 대한 표적형 사회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으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핀란드의 사례를 검토하여 위기 청년도 배제되지 않는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를 완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1 들어가며

이 시대 취약청년들이 경험하는 위기는 다종다양하고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복합적(complex)인 청년의 위기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고 다중적(multiple)이다(김성아 외, 2021; 김성

아 외, 2023; 김동진 외, 2025).¹⁾ 복합 위기를 경험하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자본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대학을 가더라도 시간제 일을 하며 학비와 주거비, 생계비를 벌어야 할 수도 있다. 비수도권에 살면서 대외활동을 하려

1) 복합성은 여러 가지 성질이나 요소가 섞여서 하나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고, 다중성은 여러 요소가 겹친 상태를 말하며, 다차원성은 서로 다른 각도와 측면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면 서울을 오가는 왕복 교통비가 필요하고, 문화활동을 즐기면서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비용이 있어야 한다(김성아, 김지연 외, 2023, pp. 150-167). 그런데 가족돌봄 등 이행기 과업 달성을 방해하는 위기로 인해 취약성이 중첩된 청년들은 교육, 일, 관계, 결혼 등 평범한 삶을 이루는 과업을 점진적으로 포기하게 된다(김성아, 김지연 외, 2023, pp. 105-106).

한편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는 부인할 수 없다.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2021년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1조 6000억 원, 2022년은 24조 6000억 원, 2023년은 25조 4000억 원, 2024년은 27조 500억 원, 2025년은 28조 2000억 원, 그리고 2026년은 약 3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n.d.; 국무조정실, 2026. 4. 28.). 예산 대부분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분야에 투입된다. 위기 상황에서 사회보장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에 특화된 복지를 포함한 복지·문화 영역의 예산은 2025년 기준 2조 2000억 원으로 청년정책 예산의 7.9% 정도다. 2021년 8800억 원(4.1%)에 비해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현재 청년정책은 일반 청년이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경로를 지원하는 데에 더 집중되어 있다.

일반 청년정책을 이용하기에도 취약성이 삶을 압도하여 주변부에 머물던 위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그간 청년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교차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그 틈을 메우는 청년복지는

2026년 3월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의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위기아동청년법」 제2조에서는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느라 자기 이행이 지연된 청년, 생애 단계에서 실패를 누적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 없이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 그 밖에 복합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데에 국가 책임을 명시한 것에 의의가 크다. 그리고 법 제1조와 같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 청년의 복합 위기를 완화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청년복지가 제도화됨에 따라 일반 청년정책과 아동-청년-중장년-노년기의 전 생애를 잇는 사회보장정책 간의 사각지대를 가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가족돌봄, 고립과 은둔, 그 밖에 다종다양한 위기를 충분히 완화한 청년은 일반 청년정책의 이용자로 전환되고, 혹은 일반 청년사업에서 위기 청년을 발견하면 청년 복지 제도로 연계될 수 있다. 아동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청년기에 진입한 이들은 청년 복지 제도로 전환 연계되어야 한다. 청년기에 충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청년 연령 범위를 벗어난다면 중장년 지원체계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현세대 청년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며 일반 청년정책과 사회보장정책 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청년 복지 제도화 과제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최근 청년의 삶 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청년 삶 실태조사

를 분석하여 청년 위기의 다차원성과 다중성을 실증분석한다.²⁾ 둘째, 해외 사례로서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보편적 사업과 위기 청년에 특화된 표적형 사회 사업으로 이원화된 핀란드 청년지원체계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³⁾ 한국에 주는 함의를 찾는다.

2 청년 위기의 다차원성과 삶 실태

〈표 1〉은 청년이 경험할 수 있는 장애, 활동제약, 이주배경, 한부모가구의 부모, 한부모가구의 자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 은둔, 고립, 신용불량 등 10가지 유형의 위기를 경험하는 청년의 비율과 기본적인 특성을 전체 청년 표본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위기 유형으로는 김성아 외(2021)에서 청년의 인적 속성, 관계 특성, 경제적 특성 등에 의해 분류한 다차원적인 취약성을 다루고 있다.

청년의 위기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한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은둔(5.2%), 사회적 교류와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모두 없는 고립(3.5%), 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한 활동제약(2.9%), 한부모가구의 자녀(2.7%), 장애(1.1%), 부모나 자신의 이주배경(0.8%), 자립준비청년(0.7%), 가족돌봄(0.6%),

신용불량(0.6%), 한부모가구의 부모(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 중 여성의 비율은 47.4%인데, 한부모가구의 부모인 경우 여성 비율은 93.1%에 달한다. 한편 자립준비청년(30.5%), 장애(32.9%), 고립(37.3%), 신용불량(39.6%) 순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전체 집단 중 19~24세 초기 청년, 25~29세 중기 청년, 30~34세 후기 청년 간 비율이 유사한 반면 이주배경과 한부모가구의 자녀를 제외하면 대체로 초기 청년보다 중기(25~29세 혹은 후기(30~34세) 청년 집단에서 위기 유형별 비율이 높다. 특히 한부모가구의 부모, 신용불량, 활동제약은 청년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크다. 1인가구의 비율은 자립준비청년(41.6%), 신용불량(29.9%), 고립(29.0%), 활동제약(25.1%)을 제외하면 전체 평균 23.8%보다 적다.

청년이 경험하는 위기 유형에 따른 소득과 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에 비해 한부모가구의 부모, 가족돌봄의 경우 청년 개인의 평균 연간소득이 높는데, 두 집단 모두 돌봐야 하는 자녀 혹은 아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둔하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청년 개인의 평균 연간소득이 1000만 원대로 낮은 편이다.

2) 2022년에 최초 실시된 청년 삶 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시행되는데, 조사시점 기준 청년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1만 5000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다운로드한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3) 핀란드는 개방형 보편적 청년사업과 표적형 사회적 청년사업의 이원적 체계를 법률과 전달체계 수준에서 갖추고 있고, 국가감사원(NAOF)의 반복적인 성과 평가와 OECD(2024) 등에 의한 분석 등 제도 운영의 근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의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사례로 판단하였다.

[표 1] 청년 위기의 다차원성과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1. 장애	2. 활동 제약	3. 이주 배경	4. 한부모 가구의 부모	5. 한부모 가구의 자녀	6. 자립 준비 청년	7. 가족 돌봄	8. 은둔	9. 고립	10. 신용 불량
비가중 표본 수(n)	15,098	191	478	126	38	435	128	91	788	569	100
비율(%)	100.0	1.1	2.9	0.8	0.2	2.7	0.7	0.6	5.2	3.5	0.6
여성(%)	47.4	32.9	50.1	51.6	93.1	46.0	30.5	51.1	40.1	37.3	39.6
19~24세(%)	32.6	25.4	22.7	37.1	10.5	55.3	22.4	12.8	33.2	21.6	12.5
25~29세(%)	33.9	37.0	36.5	38.4	31.6	26.5	42.5	36.0	38.2	36.3	39.6
30~34세(%)	33.5	37.6	40.8	24.6	57.9	18.2	35.1	51.2	28.6	42.1	47.8
1인 가구(%)	23.8	11.3	25.1	17.0	0.0	0.0	41.6	0.0	17.5	29.0	29.9

주: 1) ① 장애는 본인이 등록장애인인 경우, ② 활동제약은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이주배경은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외국 국적인 경우, ④ 한부모가구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 ⑤ 한부모가구인데 자신이 자녀인 경우, ⑥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해 보호조치를 종료하였거나 아동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⑦ 가족돌봄은 가구에서 만성화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는 주돌봄자인 경우, ⑧ 은둔은 장애나 몸이 불편하거나 임신·출산 이외의 이유로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거나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거나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 ⑨ 고립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비동거 가족이나 친척 혹은 업무상 목적 이외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경우, ⑩ 신용불량은 청년 당사자가 금융 채무 불이행자인 경우임.
2)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집단, 예를 들어 한부모가구의 부모(38명), 가족돌봄(91명), 신용불량(100명) 등 일부 위기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청년삶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국가데이터터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doi.org/10.23333/PN.99990547.V2.1>

상대빈곤율은 10개 위기 유형에서 모두 전체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용불량인 경우 빈곤할 확률은 28.3%에 달한다.

지난주 수입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일한 비율은 신용불량, 한부모가구의 부모, 고립 위기를 경험하는 청년을 제외하면 모두 전체 집단 67.7%보다 낮다. 특히 은둔은 34.1%에 불과하고, 장애(54.0%), 이주배경(54.9%), 활동제약(56.8%), 가족돌봄(57.7%)도 낮은 편이다. 미취업자 중 구직 경험이 있는 비율은 한부모가구의 자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기 유형에서 전체 집단 14.0%보다 높다. 미취업

자 중 지난주 주로 쉬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돌봐야 하는 자녀 혹은 아픈 가족이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모(0.0%)와 가족돌봄(20.8%)을 제외한 모든 위기 유형에서 전체 평균 2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기를 경험하는 청년은 빈곤할 확률이 높고, 소득 활동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쉬었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크다. 그러나 미취업한 상태에서 구직을 시도한 경험은 대부분의 위기 유형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아 쉬었다는 응답이 곧 구직 포기나 일하려는 의지의 부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년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위기 상황은 건강

[표 2] 청년의 다차원적 위기에 따른 소득과 일

구분	전체	1. 장애	2. 활동 제약	3. 이주 배경	4. 한부모 가구의 부모	5. 한부모 가구의 자녀	6. 자립 준비 청년	7. 가족 돌봄	8. 은둔	9. 고립	10. 신용 불량
개인연간 소득평균 (만 원/연)	2,625.2	1,922.4	2,300.4	2,632.3	3,139.6	2,085.1	2,603.4	2,710.4	1,719.2	2,657.1	2,536.5
상대빈곤율 (%)	10.3	19.8	16.3	16.3	26.1	16.9	22.6	17.0	21.2	14.6	28.3
지난주 수입 목적 일함(%)	67.7	54.0	56.8	54.9	77.8	62.8	64.4	57.7	34.1	70.3	82.2
미취업자 중 구직 경험 있음(%)	14.0	14.3	18.6	18.6	40.0	14.0	16.4	17.3	24.0	18.6	15.1
미취업자 중 쉬었음(%)	27.5	47.1	40.3	33.6	0.0	34.5	60.1	20.8	49.0	52.2	43.8

주: 1) 위기 유형별 정의는 <표 1>의 주 1)과 같음.

2) 상대빈곤율은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연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비율임.

3)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집단, 예를 들어 한부모가구의 부모(38명), 가족돌봄(91명), 신용불량(100명) 등 일부 위기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청년삶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국가데이터터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doi.org/10.23333/PN.99990547.V2.1>

상태와도 연관된다. 번아웃을 경험한 비율은 10개 지 모든 위기 유형에서 전체 평균 32.2%보다 크게 나타난다. 특히 활동제약이 72.0%, 신용불량이 64.9%, 은둔이 55.8%, 고립이 50.7%, 한부모가구의 부모가 50.6%로 높은 편이다. 전체 집단의 우울증 선별도구(PHQ-9) 척도 응답값은 평균 3.1점인데, 10가지 모든 위기 유형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 특히 활동제약이 10.2점, 신용불량이 8.9점으로 높다. PHQ-9 척도의 응답값이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는데, 10가지 모든 위기 유형에서 전체 평균 8.8%보다 높게 드러난다. 특히 활동제약이 46.4%,

신용불량이 41.4%, 자립준비청년이 30.8%로 높은 편이다. 자살생각을 한 비율 역시 10개 모든 위기 유형에서 전체 평균 2.9%보다 높다. 특히 신용불량이 29.7%로 전체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고, 활동제약인 경우 역시 21.9%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한 미충족 경험도 전체 평균 2.8%에 비해 10개 모든 위기 유형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활동제약이 20.2%, 신용불량이 18.5%로 매우 높다. 그 밖에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한 미충족 경험 역시 10가지 모든 위기 유형에서 전체 평균 2.1%보다 높다. 특히 활동제약과 신용

불량인 경우 미충족 비율이 19.1%로 매우 크다. 특이하게는 장애나 활동제약의 신체 제약과 신용불량의 제도적 제약이 건강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년이 경험하는 다종다양한 위기 상황은 연애와 결혼, 미래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이주배경이 32.2%, 가족돌봄이 30.6%, 신용불량이 19.8%로 전체 평균 18.3%보다 높지만, 그 밖의 다른 위기 유형을 경험하는 경우 유배우자의 비율이 낮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연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집단 평균이 36.2%인데, 신용불량(51.1%), 가족돌봄(42.4%), 자립준비청년(41.1%), 한부모가족의 부모(37.6%)를 제외한 다른 위기 유형을 경험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주배경이 72.6%, 자립준비청년이 65.7%로 전체 평균 63.1%보다 높지만, 다른 위기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자립준비청년이 65.5%로 전체 평균 59.3%보다 높지만, 대부분의 위기 유형에서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미래를 실현할 가능성에 대해

[표 3] 청년의 다차원적 위기에 따른 건강

구분	전체	1. 장애	2. 활동 제약	3. 이주 배경	4. 한부모 가구의 부모	5. 한부모 가구의 자녀	6. 자립 준비 청년	7. 가족 돌봄	8. 은둔	9. 고립	10. 신용 불량
번아웃 경험(%)	32.2	36.3	72.0	45.8	50.6	37.5	47.1	49.3	55.8	50.7	64.9
PHQ-9 평균 (0~27점)	3.1	5.5	10.2	4.9	7.1	4.0	6.1	5.2	6.2	6.9	8.9
우울증상 유병(%)	8.8	20.4	46.4	16.3	21.4	11.5	30.8	15.8	23.4	27.6	41.4
자살생각 했음(%)	2.9	8.9	21.9	9.5	15.5	5.3	10.5	16.1	10.4	11.0	29.7
정신건강 상담 미충족 경험 있음(%)	2.8	5.8	20.2	9.7	22.1	4.3	10.3	8.0	7.1	8.9	18.5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 있음(%)	2.1	6.7	19.1	6.0	9.7	2.9	8.8	7.0	4.7	7.2	19.1

주: 1) 위기 유형별 정의는 <표 1>의 주 1)과 같음.
2) PHQ-9 응답값의 합이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 유병인 것으로 정의함.
3)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집단, 예를 들어 한부모가구의 부모(38명), 가족돌봄(91명), 신용불량(100명) 등 일부 위기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청년살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국가데이터터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doi.org/10.23333/PN.99990547.V2.1>

[표 4] 청년의 다차원적 위기에 따른 연애, 결혼, 미래 전망

구분	전체	1. 장애	2. 활동 제약	3. 이주 배경	4. 한부모 가구의 부모	5. 한부모 가구의 자녀	6. 자립 준비 청년	7. 가족 돌봄	8. 은둔	9. 고립	10. 신용 불량
유배우(%)	18.3	12.8	16.0	32.2	3.2	0.0	8.8	30.6	9.6	16.9	19.8
무배우자 중 연애 중(%)	36.2	28.0	34.3	29.4	37.6	28.6	41.1	42.4	20.7	32.2	51.1
무배우자 중 결혼 계획 있음(%)	63.1	44.6	57.9	72.6	20.8	56.5	65.7	55.0	43.0	44.1	60.7
자녀 계획 있음(%)	59.3	40.8	53.0	57.3	14.9	52.4	65.5	50.7	44.0	44.3	57.2
바라는 미래 전혀 실현 불가(%)	7.6	26.9	24.6	8.6	28.4	8.6	13.9	16.9	19.7	24.6	20.3

주: 1) 위기 유형별 정의는 <표 1>의 주 1)과 같음.

2) 유배우자는 사실혼 혹은 동거를 포함하므로 한부모가구의 부모 중 유배우 응답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3)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집단, 예를 들어 한부모가구의 부모(38명), 가족돌봄(91명), 신용불량(100명) 등 일부 위기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청년삶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doi.org/10.23333/PN.99990547.V2.1>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는 모든 위기 유형에서 전체 집단 평균 7.6%보다 높다. 특히 한부모가구의 부모(28.4%), 장애(26.9%), 활동제약(24.6%), 고립(24.6%)의 위기를 겪는 경우 상대적으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3 청년 위기의 다중성과 삶 실태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10가지 종류의 다차원적인 위기가 청년 1명당 중첩되는 실태를 분석했

다. 이 분석에서 위기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청년은 85.3%였다.⁴⁾ 한 가지 종류의 위기를 경험하는 비율은 11.9%이고, 두 가지 위기의 중첩을 경험한 비율은 2.3%, 3가지 이상의 위기 중첩을 경험한 비율은 0.5%였다. 청년이 경험하는 위기는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 취약성을 심화할 수 있다.

위기의 중첩, 즉 다중 위기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경험하는 위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여성의 비율이 줄어든다. 위기가 2개 이상 중첩될수록 20대 중후반 중기 청년 혹은 30대 초중반 후

4) 이 글의 분석에서는 김성아 외(2021)에 의한 인적 속성, 관계 특성, 경제력 특성과 관련된 위기 유형의 일부를 분석하였다. 일과 관련된 위기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위기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표 5] 청년의 다중 위기와 일반적 특성

구분	전체	위기 0개	위기 1개	위기 2개	위기 3개 이상
비가중 표본 수 (n)	15,098	12,740	1,882	385	91
비율(%)	100.0	85.3	11.9	2.3	0.5
여성(%)	47.4	48.1	45.0	39.6	32.3
19~24세(%)	32.6	32.7	33.3	26.8	19.0
25~29세(%)	33.9	33.7	34.2	35.5	47.7
30~34세(%)	33.5	33.6	32.5	37.7	33.3
1인 가구(%)	23.8	24.7	18.7	18.8	17.2

주: 1) 청년 1인이 경험하는 <표 1> 주 1)에 의한 10개 위기 종류의 개수임.
2)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집단, 예를 들어 위기가 3개 이상 중첩된 집단(91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청년삶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doi.org/10.23333/PN.99990547.V2.1>

기 청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위기를 경험하는 집단에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24.7%)보다 낮고, 위기가 3개 이상 중첩된 경우는 17.2%로 가장 낮다. 위기가 중첩된 청년일수록 가족이나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기가 중첩될수록, 즉 청년 1인이 경험하는 위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개인 평균 연간소득이 줄어든다. 빈곤할 확률은 중첩된 위기의 개수가 2개 인 경우 22.6%로 가장 높지만, 3개 이상 위기가 중첩된 경우의 빈곤율도 19.4%로 결코 낮지 않다. 지난주 수입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인한 비율은 위

[표 6] 청년의 다중 위기에 따른 소득과 일

구분	전체	위기 0개	위기 1개	위기 2개	위기 3개 이상
개인연간소득평균(만원/연)	2,625.2	2,694.4	2,249.1	2,139.2	2,054.8
상대빈곤율(%)	10.3	9.0	16.5	22.6	19.4
지난주 수입 목적 일함(%)	67.7	69.6	57.8	51.3	43.8
미취업자 중 구직 경험 있음(%)	14.0	12.3	21.8	19.0	12.7
미취업자 중 쉬었음(%)	27.5	24.3	37.2	53.0	61.4

주: 1) 청년 1인이 경험하는 <표 1> 주 1)에 의한 10개 위기 종류의 개수임.
2) 상대빈곤율은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연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비율임.
3)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집단, 예를 들어 위기가 3개 이상 중첩된 집단(91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청년삶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doi.org/10.23333/PN.99990547.V2.1>

기가 중첩될수록 작아져 3가지 이상 위기가 중첩된 경우 43.8%에 불과하다. 미취업자 중 구직 경험이 있는 비율은 한 가지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21.8%, 두 가지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19.0%, 세 가지 이상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12.7%로 위기가 중첩될수록 구직 경험을 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미취업자 중 지난해 쉬었다고 보고한 비율은 위기가 중첩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청년의 위기가 중첩될수록 건강 취약성이 체계적으로 심화된다. 전체 집단 평균 번아웃 경험의 비율은 32.2%인데, 한 가지 위기를 경험하면 그 비율은 49.0%, 두 가지 위기를 경험하면 57.5%, 세 가지 이상 위기를 경험하면 66.9%로 점차 높아진다. 우울증 선별도구(PHQ-9) 척도의 응답값은 한 가지 위기를 경험하면 5.4점, 두 가지 위기를 경험하면 7.7점, 세 가지 이상 위기를 경험하면 12.0점으로 전체 집단 평균 3.1점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PHQ-9 응답값이 10점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는 우울증상 유병 비율 역시 위기 개수가 증가할수록 19.8%, 32.0%, 56.6%로 증가폭이 크다. 자살생각을 한 비율은 한 가지 위기를 경험했을 때 7.0%, 두 가지 위기를 경험했을 때 17.1%, 세 가지 이상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36.0%로 전체 평균 2.9%에 비해 매우 높다.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한 미충족 경험의 비율도 위기 개수가 증가할수록 6.8%, 12.0%, 25.9%로 체계적으로 증가하고,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의 비율 역시 5.8%, 8.7%, 23.0%로 증가한다.

청년의 다중 위기는 연애와 결혼, 미래에 대한 전망과도 관련된다. 한 가지 위기를 경험할 때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13.8%, 두 가지 위기를 경험할 때 12.0%, 세 가지 이상의 위기를 경험할 때 6.8%로 점차 낮아지는데, 이는 전체 평균 18.3%보다 낮은 것이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 중에서 연애하고 있다

[표 기] 청년의 다중 위기에 따른 건강

구분	전체	위기 0개	위기 1개	위기 2개	위기 3개 이상
번아웃 경험(%)	32.2	28.9	49.0	57.5	66.9
PHQ-9 평균(0~27점)	3.1	2.6	5.4	7.7	12.0
우울증상 유병(%)	8.8	6.4	19.8	32.0	56.6
자살생각 했음(%)	2.9	1.8	7.0	17.1	36.0
정신건강 상담 미충족 경험 있음(%)	2.8	1.9	6.8	12.0	25.9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 있음(%)	2.1	1.3	5.8	8.7	23.0

주: 1) 청년 1인이 경험하는 <표 1> 주 1)에 의한 10개 위기 종류의 개수임.

2) PHQ-9 응답값의 합이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 유병인 것으로 정의함.

3)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집단, 예를 들어 위기가 3개 이상 중첩된 집단(91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청년삶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doi.org/10.23333/PN.99990547.V2.1>

[표 8] 청년의 다중 위기에 따른 연애, 결혼, 미래 전망

구분	전체	위기 0개	위기 1개	위기 2개	위기 3개 이상
유배우(%)	18.3	19.1	13.8	12.0	6.8
무배우자 중 연애 중(%)	36.2	37.5	29.0	29.6	30.6
무배우자 중 결혼 계획 있음(%)	63.1	65.1	54.5	41.7	46.8
자녀 계획 있음(%)	59.3	60.9	52.3	40.8	41.6
바라는 미래 전혀 실현 불가(%)	7.6	6.1	13.3	25.8	47.6

주: 1) 청년 1인이 경험하는 <표 1> 주 1)에 의한 10개 위기 종류의 개수임.

2) 유배우자는 사실혼 혹은 동거를 포함함.

3)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집단, 예를 들어 위기가 3개 이상 중첩된 집단(91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청년삶실태조사”,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doi.org/10.23333/PN.99990547.V2.1>

고 응답한 비율은 1개 이상의 위기를 경험할 때 3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역시 전체 집단 평균 36.2%보다 낮은 것이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 중에서 결혼 계획이 있는 비율은 한 가지 위기를 경험할 경우 54.5%, 두 가지 위기를 경험할 경우 41.7%, 세 가지 이상의 위기를 경험할 경우 46.8%로 전체 평균 63.1%보다 낮고, 자녀 계획이 있는 비율 역시 전체보다 위기를 경험할 때 낮게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한 가지 위기를 경험할 때 13.3%, 두 가지 위기를 경험할 때 25.8%, 세 가지 이상의 위기를 경험할 때 47.6%로 위기가 중첩될수록 악화된다.

4 핀란드의 청년 지원: 일반 청년과 위기 청년에 대한 이원적 접근과 함의

핀란드의 청년 지원은 29세 이하 사람의 사회통

합(social inclusion)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청년법(Youth Act 2017)」에 법적 근거를 두고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사업과 전달체계는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보편적 청년사업(open/universal youth work)’과 교육, 노동시장, 사회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청년에 특화된 ‘표적형 사회적 청년사업(targeted/social youth work)’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가지고 청년센터, 학교 청년사업, 디지털 청년사업 등을 운영하며 청년이 지역과 사회에서 실존하며 이행기 과업을 완수하는 안전한 공간(spaces)을 제공한다. 후자는 위기 청년을 찾는 아웃리치(outreach) 청년사업, 사회서비스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 사이에서 개인화된 코칭(coaching)과 실제 작업 및 활동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적 학습 공간으로서의 청년 워크숍(youth workshop),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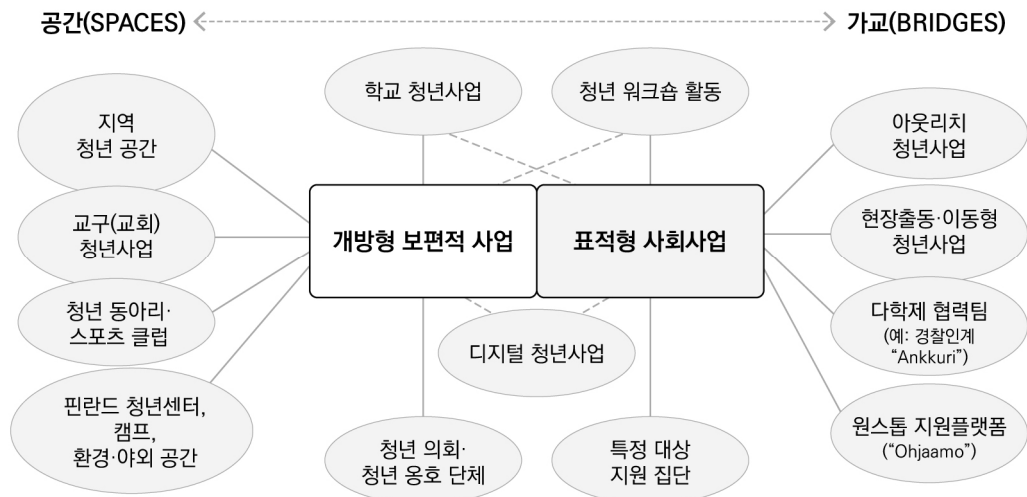
리고 원스톱 지원 플랫폼 오희야모(Ohjaamo)를 핵심 수단으로 사회에서 배제된 위기 청년을 제도 와 사회로 되돌아가게 돕는 가교(bridges)의 역할을 수행한다(INTO, 2025).

‘청년’이라는 집단 내의 이질적 욕구에 대응해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더라도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보편적 사업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형 사회사업이 분절된 것은 아니다. 거울의 양면처럼 공존하되 역할을 분담하며 디지털 청년사업과 지역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학교 청년사업, 청년 워크숍 활동 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핀란드 청년 지원은 단일 사업으로 존재하지 않

는다. 교육,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 청년사업, 행정기관에 의한 지원,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을 종합하는 네트워크 구조에서 시너지를 얻는다. 다만 위기 청년에 특화된 사업은 주로 아웃리치와 청년 워크숍, 오희야모 원스톱 지원 플랫폼에 의해 구성된다(INTO, 2025). 훈련된 전문인력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웃리치 청년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다가가 그의 성장, 자립, 사회적 포용, 생활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교육 접근과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Paananen et al., 2022).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년 전문가가 신뢰할 수 있는 어른으로 다가가며, 집단활동 등의 체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보

[그림 1] 핀란드 청년정책의 이원적 접근



주: Claude Opus 5(Anthropic)를 활용해 원그림을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재구성하였고, 용어 선택과 최종 표현은 저자가 검토·확정함.
출처: "Outreach Youth Work Handbook & Youth Workshops in Finland" (INTO-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INTO, 2025,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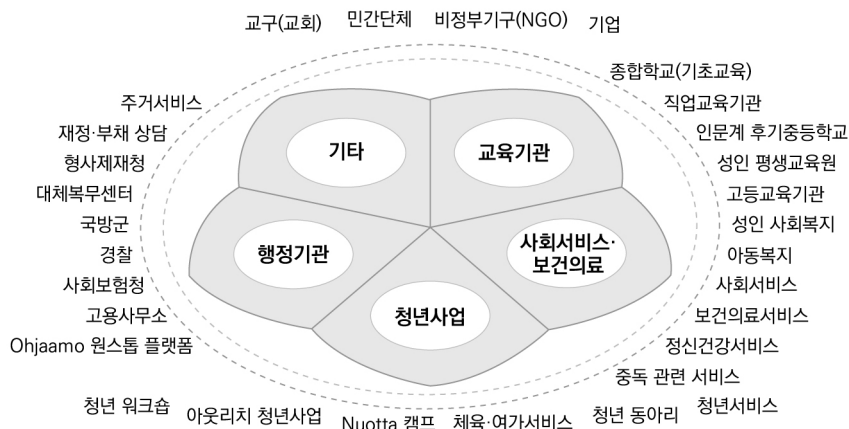
건, 고용 전문가와의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24년 281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조사(Sovari)에 따르면 ‘전담 인력이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충분하다’(4.6/5점), ‘전담 인력이 내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다’(4.7/5점, ‘전담 인력이 스스로 행동하도록 격려한다’(4.7/5점)는 데에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다. 응답자의 82%가 일상생활 기술에서, 80%가 학업 및 직업 준비에서, 79%가 일상생활 관리에서 진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INTO, 2025).

청년 워크숍(Youth Workshop)은 교육 접근 및 학업 완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능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코칭 공동체(coaching community) 공간이다. 목공이나 건설, 미디어나 정보기술(IT) 등 실제 작업장에서 체험을 통한 직업훈련, 직무 및

학업능력, 개인 생활관리, 직업 알선 등을 지원하며, 학교 이외 대안적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핀란드 국가감사원(VTV)에서는 2013~2016년 코호트에서 코칭 후 수년 내 약 절반이 교육, 일부 고용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중졸 후 고등교육으로 진학하지 않는 20세 미만에게 집중하면서 아웃리치 사업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여 청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NAOF, 2020).

오호야모 원스톱 플랫폼은 누구나 예약이나 등록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낮은 문턱 다기관 지원 통합 창구로서 별도의 새 조직이 아니라 기존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거점이다. 고용서비스(TE), 지자체 청소년 서비스, 교육기관, 사회보건, 사회보장(Kela) 인력이 한 공

[그림 2] 핀란드 청년 지원의 네트워크 구조



주: Claude Opus 5(Anthropic)를 활용해 원그림을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 재구성하였고, 용어 선택과 최종 표현은 저자가 검토·확정함.
출처: "Outreach Youth Work Handbook", Paananen et al. (eds.), 2022,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INTO, p. 37.

간에 상주·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호야모를 이용한 청년이 일반 고용서비스 사무소를 이용한 청년에 비해 더 빨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적극적으로 조치한 비율이 약 2배 정도로 높았는데, 비용 편익 분석에서 고용 상태 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이 거점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상쇄함을 보였다(Valtakari et al., 2020). OECD는 2024년 청년정책 톨킷에서 오호야모를 원스톱 통합서비스의 국제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OECD, 2024).

위기 청년의 삶 장면에서 최초 접촉하여 직접 지원하는 아웃리치가 유입한 사례는 본인에 의한 신청뿐만 아니라 교육기관(30%), 당국(22%), 보건복지(12%), 타 청소년사업(10%) 등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가 많다. 청년 워크숍으로 진입하는 사례도 고용서비스(32%), 교육기관(17%), 사회보건(14%), 아웃리치(8%)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경우가 약 88%를 차지한다. 역방향으로 아웃리치는 청년을 워크숍·교육·고용지원·사회보건서비스로 연계하는 실적도 두드러진다. 유관기관 간 협력을 종료하는 사유에도 학업 진입, 근로생활 진입, 사회보건서비스 연계와 함께 ‘(보편) 청년사업으로의 복귀’가 포함된다(INTO, 2025). 열린 청년 공간(청년센터, 학교 등)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해 위기 청년 지원사업으로 연계하고, 특화된 청년사업에서 위기를 충분히 완화한 청년을 다시 보편적 청년사업과 주류 제도로 이어 주는 선순환적인 관계가 실현된다. 결국 모든 청년이 안전하게 이행하는 지역

의 ‘공간’과 위기 청년이 제도와 사회로 다시 연결되는 ‘가교’적 지원 간 유기적 역할 분담이 청년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결적 지원의 핵심이다.

핀란드는 2004년 청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공동체 교육가(community educator)’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응용과학대학교 및 일반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Kiilakoski, 2019).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후마크 응용과학대학교(HUMAK)이다. 역량 기반 학습으로 공동체, 교육학적(pedagogical), 사회 발전(social and developmental)의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Kiilakoski, 2019). 핀란드에서 청년 이슈를 구조화하고 관련 교육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여섯 개의 대학교육기관과 핀란드청년연구학회(Finnish Youth Research Society)에서 2007년에 YUNET(Finnish University Network for Youth Studies)을 설립하여 전문가 양성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YUNET, n.d.).

또한 최근 핀란드 국가감사원에서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등 단일 위기 유형으로 청년의 욕구를 파악하려는 시도의 불완정성, 즉 청년 위기의 다중성과 함께 소득보장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취약청년 에 대한 복지적 접근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문턱 낮은 위기 청년 지원에서 보건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였다(NAOF, 2025). 청년의 복합 위기에 대

응하기 위한 서비스의 거점을 마련하더라도 전문화된 개별 지원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앞서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한 국내 청년들이 경험하는 위기의 다차원성과 다중성, 그리고 위기가 중첩될수록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전반의 취약성이 심화되는 실태와 조응하는 지적이다.

5 나가며

현세대 취약청년이 경험하는 위기는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이다. 청년의 위기가 중첩될수록 건강과 일, 소득과 관계, 미래 등 삶 전반의 취약성이 심화된다. 일반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된 기반에서 2026년 3월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의해 청년의 복합 위기에 직접 대응하는 청년복지 사업이 제도화됨에 따라 대상에 따라 이원화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원체계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핀란드 사례에서는 청년센터 등 청년 누구나 안전하게 성장하는 지역의 ‘공간’과 위기 청년을 발견하고 사람과 제도에 다시 연결되게 돕는 아웃리치 등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한 ‘가교’적 지원 간 역할 분담이 두드러진다.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청년 사업과 특화된 사회사업은 배타적이지 않다. 이 사업들은 상호 연계하여 제도의 빈틈없이 청년을 돕는다. 열린 청년 공간에서 발견된 위기 청년을 전문화된 사업으로 연계하고, 위기가 완화된 청년이 일반 청년사업 이용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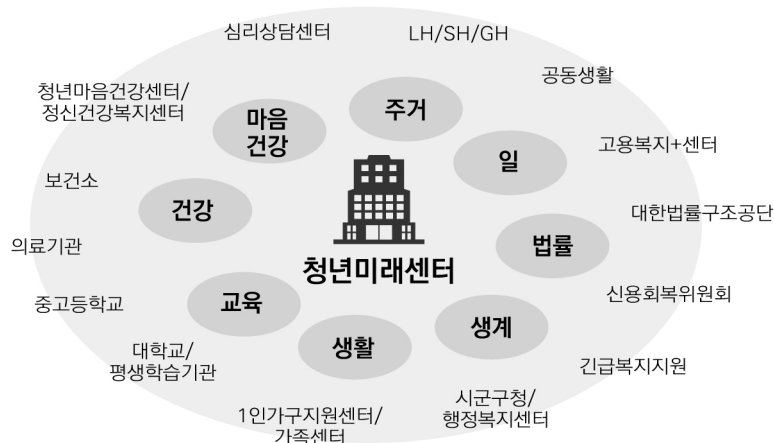
일반 청년정책의 협력자로서 위기 청년 지원체계는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뿐만 아니라 청년의 복합 욕구를 읽어 내고, 개별화된 지원계획(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민관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실천 기술인 사례관리 역량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꺼이 성장하려는 청년다움을 지키는 청년 친화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결국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데에는 청년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청년과 함께 일하며 지역에서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청년복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림 3]은 위기 청년 지원 전담조직에서 지역의 위기 청년을 발견하면서도 마음건강과 신체건강, 교육, 생활, 생계, 법률, 일, 주거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청년이 경험할 수 있는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청년의 미충족 욕구를 제거하는 청년복지 허브화 전략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청년복지 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특히 청년지원센터와 협업함으로써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를 완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복지 제도화의 일차적인 목적은 청년의 위기를 충분히 완화하여 일반 청년정책 이용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다만 아동기 혹은 청년기 복지 지원으로 위기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이후 생애 단계에 특화된 지원으로 전환 연계할 수 있다. 이로써 아동-청년-중장년-노년기

의 전 생애를 잇는 기본 사회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현재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으로 제한된 위기 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역할 범위를 다차원적인 위기로 확장할 수 있다. 신용불량 등 금융취약의 위기를 아우를 수 있고, 핀란드의 아웃리치 사업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년이 낙인 지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거리낌없이 상담할 수 있는 안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둘째, 일반 청년사업의 수행 조직인 청년지원센터와 위기 청년 지원 전담조직인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 관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두 기관은 공동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위기 청년 사례 발굴과 연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동의 대응을 도모할 수도 있다. 셋째, 청년미래센터

가 광역 단위에 우선 설치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제 한되므로 위기 청년 지원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기보다 지역에 설치되어 청년 접근성이 담보되는 청년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역량 있는 민간 지원기관 등에서 지역 단위 위기 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인증제를 통해 지원사업의 품질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핀란드에서 위기 청년 지원의 성과가 신뢰할 수 있는 훈련된 전문인력에 기반한 것과 같이 청년 친화성과 복지 전문성을 담보한 전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핀란드에서 공동체 교육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국내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관련 교과목에 ‘청년 복지론’을 신설하고 중앙청년지원센터에 의한 청년 지원 매니저 양성교육 중 위기 청년 지원에 관한 교

[그림 3] 위기 청년 지원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의 지역 청년복지 허브화 전략



출처: “청년미래센터 운영지침 개선 및 성과 모니터링 연구”, 김성아 외, 2025 발간예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화한 위기 청년 지원 전담조직에서의 경력 인정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 지원 조직 간 협력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법률 혹은 지침 개정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현세대 청년 위기의 다차원성과 다중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핀란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에서 위기 청년도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지원받음으로써 청년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간극을 이어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를 완성하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기에서는 돌봄에 묶인 한 부모가구의 부모와 가족돌봄, 관계가 단절된 고립과 은둔, 제도에서 소외된 신용불량 등 다차원적인 위기의 영향을 평면적으로 실증하였다. 위기 개수를 단조롭게 합산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위기가 결합되는 양상과 다중 취약성의 유형에 따라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청년 복지 사업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가구 기반 표본조사인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였으므로 가족 혹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집단은 과소대표되었을 수 있다. 향후 위기 유형별 심층조사를 실시, 분석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핀란드는 노동시장보조금, 학업보조금, 주거수당과 사회주택 프로그램, 무상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등 소득보장 기반에서 청년정책이 운영된다(신영규, 2021). 한국에서도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생계가

위태롭지 않도록 보호하는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2026. 4. 28.).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청년삶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doi.org/10.23333/PN.99990547.V2.1>
- 김동진, 이수빈, 최지희, 손선옥. (2025). **청년 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김문길, 오성재, 이정은, 하슬윙, 김아래미, 노혜진, 박영선, 조보배. (2025 발간예정). **청년미래센터 운영지침 개선 및 성과 모니터링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김지연, 김문길, 조성은, 정세정, 노혜진, 이정민, 강예은, 장성현. (2023). **청년정책 지원대상 연구: 취약 청년과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박윤경, 임덕영, 신영규, 함선유, 송치호.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규. (2021). 핀란드 청년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18, 79-9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n.d.). **청년정책 중앙행정기관 예산**. <https://www.nypi.re.kr/yap/youthStats/28/kgiAKUdWuf>

- menuld=MENU002050103000000
- INTO. (2025). *Outreach Youth Work Handbook & Youth Workshops in Finland* [발표자료]. INTO-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 Kiilakoski, T. (2019). *Youth work education in Finland. Finnish Youth Research Network.*
- NAOF. (2020).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Audit Office: Effectiveness of youth workshops, and resources and efficiency of outreach youth work.* <https://vtv.fi/wp-content/uploads/2025/08/NAOF-recommendations-2-2020-Effectiveness-of-youth-workshops-and-resources-and-efficiency-of-outreach-youth-work.pdf>
- NAOF. (2025).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Audit Office: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 identification, outreach and rehabilitation.* <https://vtv.fi/wp-content/uploads/2025/08/NAOF-recommendations-1-2025-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identification-outreach-and-rehabilitation.pdf>
- OECD. (2024). *OECD Youth Policy Toolkit.*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74b6f8f3-en>
- Paananen, E., Piironen, M., & K. Uustalo (eds.). (2022). *Outreach Youth Work Handbook.*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INTO.
- Valtakari, M., Arnkil, R., Eskelinen, J., Mayer, M., Nyman, J., Sillanpää, K., Spangar, T., Ålander, T., & Yli-Koski, M. (2020). *Ohjaamotomionialaista yhteistyötä, vaikuttavuutta ja uutta toimintakulttuuria* (Policy Brief, 5).
- YUNET. (n.d.). <https://yunet-verkosto.blog/in-english/>

Institutionalizing Welfare Policy for Young People Facing Multiple Risks

Kim, Seong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considers how gaps between general youth policies and social security policies can be bridged through welfare policies in response to the multidimensional challenges faced by today's young adults. Social withdrawal, social isolation, activity limitations, single parenthood, disability, migrant backgrounds, transitions from institutional care to independent living, family caregiving responsibilities, and credit delinquency are among the risk factors that may hinder young individuals' transition into independent living. When two or more of these factors occur simultaneously, they are likely to make affected individuals' future prospects more precarious across various dimensions of life, including health, work, income, relationship formation, and marriage. Drawing on a comparison with the Finnish case, where open-access universal programs for young people in general and targeted social services for young people at risk in particular, although distinct in their roles, operate in complementary and interconnected ways, this study further explores measures for establishing a young people-friendly support delivery system that ensures no one in crisis is left without assistance.